

코스콤, '경력녀' IT취업지원...취업률 100%

»» 프레스룸

금융IT 발전을 위한 코스콤의 다양한 활동들을 빠르게 알려 드립니다.



경력단절여성 교육지원 지원금 전달식 사진

- 코스콤이 지원하는 IT취업 프로그램을 수료한 영등포구 경력단절여성들이 전원 재취업에 성공했다.
- 코스콤(사장 정지석)은 이러한 일자리 창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재취업을 준비 중인 경력단절여성들을 영등포구청, 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와 함께 교육현장에 IT융합강사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IT취업프로그램 교육과정을 후원한다고 26일 밝혔다.
- 코스콤이 지원하여 2019년 최초로 진행된 코딩강사 교육과정은 최근 방과 후 교육과 진로체험 현장에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분야다. 로봇코딩강사 과정을 수료한 경력단절여성 20명은 모두 교육기관에 취업했고 이중 60%은 전문성을 인정받아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다.
- 임재욱 코스콤 전무이사는 “유관기관과 지자체, 여성교육 전문기관이 합심해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성과를 낼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”며 “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

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앞으로도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”고 말했다.

* 저작권법에 의하여 해당 콘텐츠는 코스콤에 저작권이 있습니다.

* 따라서, 해당 콘텐츠는 사전 동의없이 2차 가공 및 영리적인 이용을 금합니다.